청년층 학습시간 관리행태 변화

정 현 상*

Ⅰ. 머리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중 취업을 위한 시험준비자는 2006년 886천 명(전체 청년층 대비 11.7%)에서 2007년 680천 명(9.0%)으로 감소한 후 점차 증가하여 2016년 기준 1,046천 명(14.4%)을 기록하였다.[1] 또한 취업 관련 시험준비에 포함된 임용고시와 공무원 5급 공채 및 사법시험,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소위 '공시생'으로 불리는 청년층은 2016년 416천 명으로 전체 시험관련 취업준비자 중에서 39.7%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2016년 5월 기준 시험준비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찰, 소방관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시험준비생의 규모가 가장 많은 353천 명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대기업, 중소기업과 같은 일반기업체 시험준비생의 규모가 약 30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전문대학이나 대학 이상에서 재학중에 시험준비를 하는 청년은 2016년 336천 명으로 전체 시험준비자의 32.1%로 조사되었고 졸업 후 미취업자는 562천 명(53.7%), 졸업 후 취업자 중에서도 149천 명(14.2%)은 시험준비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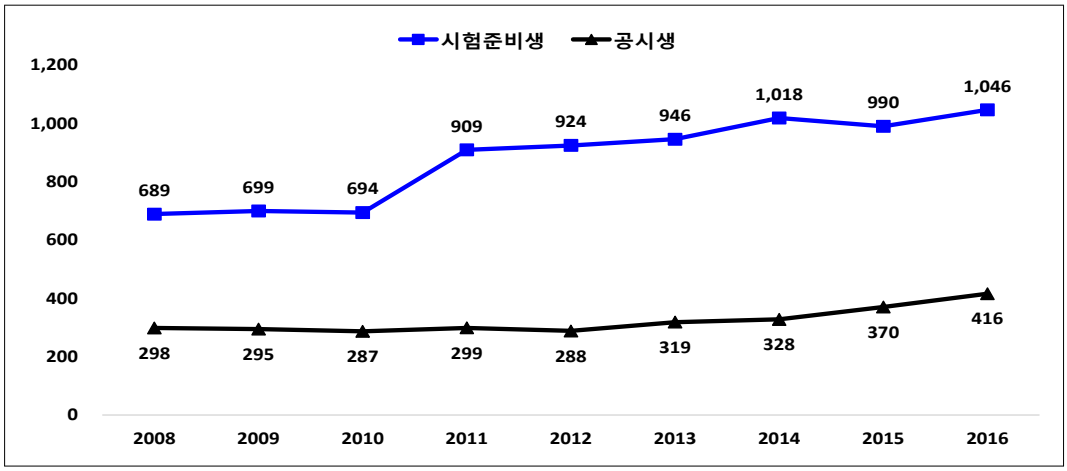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는 공공부문 고용 안정성이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 우수하고 임금과 복지수준, 노동조건 등도 양호하기 때문에 공시생의 비중이 늘어나는 측면과 기업채용 과정에 인적성 검사 등 채용과정에 시험전형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공무원 시험준비나 각종 전문자격증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취업준비 형태가 된 것 같다. 이를 청년층의 생활상과 연결시켜 보면 최근 청년층의 생활시간 활용에서 학습시간 관리행태에 변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hsjung@kli.re.kr).
1)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시험준비자는 2006년부터 조사되었으며 중등교육기관 재학생과 무응답(미상)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생활시간의 소비패턴 및 그 구조에 대한 분석은 시간 사용에 대한 선택에 있어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가는 개인이나 그가 속한 집단의 생활양식을 예시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청년층의 특징별로 일상생활에서의 시간배분 형태와 변화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중에서 청년층의 학습시간 관리행태를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겠다.

〔그림 1〕 청년층 취업 관련 시험준비생 규모 변화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5월)」 원자료, 각 연도.

〈표 1〉 청년층 세부항목별 취업 관련 시험준비생 규모 변화

(단위 : 천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언론사	32	6	11	14	10	18	27	19	25	26	23
국공영기업체	63	50	39	45	29	40	45	66	59	59	84
일반기업체	188	135	141	152	133	219	254	258	304	272	304
교원임용고시	65	61	51	62	44	48	59	49	58	49	49
각종 고시	26	21	22	24	31	18	21	10	16	13	14
일반직 공무원	292	231	225	209	212	233	208	260	254	309	353
전문 분야 자격증	64	54	66	72	70	74	77	79	90	57	62
기능 분야 자격증	110	95	91	88	109	155	147	130	131	171	131
기타	47	25	43	35	57	104	86	76	82	34	27
시험준비자 전체	886	680	689	699	694	909	924	946	1,018	990	1,046
시험준비하지 않음	6,717	6,857	6,772	6,677	6,559	6,311	6,197	6,253	6,211	6,280	6,215

주 : 시험준비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합은 중등교육기관 재학생과 무응답자(미상)를 제외한 15~29세 청년층 인구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5월)」 원자료, 각 연도.

Ⅱ. 청년층 시간활용 분석자료와 방법

본 글에서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 2004년과 2009년, 2014년 생활시간조사[2] 원자료이다. 생활시간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틀을 가지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2,000가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 27,716명(최종 응답가구 및 응답가구원 각각 11,986가구 26,988명)이 기록한 시간일지를 데이터화한 것이다. 각 개인은 10분 단위 일지에 본인의 주행동, 동시행동, 행동장소를 기록하게 되며, 따라서 하루는 144(24시간×6)개 시간단위로 구성되고 본 글에서는 주행동의 시간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3]

한편 청년기 일상생활 변화를 정규교육기관 졸업여부로 보고 대학(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과 중등교육기관 혹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중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본 글은 청년층 중에서도 사회진출을 앞두거나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학습시간 관리행태 변화를 알아보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행동분류 방식에 따라 청년층의 요일과 사회·인구학적(성별, 연령(15~24세/25~29세) 특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볼 것이다. 한편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조사응답자에게 "평소 시간부족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1.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2. 가끔 부족하다고 느낌, 3. 약간 여유있다고 느낌, 4. 항상 여유있다고 느낌 4가지 형태로 응답하고 있다. 여기서 1, 2를 시간부족. 3, 4를 시간여유로 그룹화하여 청년층 학습시간량에 따른 시간인식 차이에 관하여 알아본다. 또한 어떤 행위의 시간할애가 과중했을 때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인 하루 일과후 피곤함의 정도(피곤함/피곤하지 않음)와 그 차이에 관해서도 논의하겠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서 학습의 정의를 보면 2004년과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학습을 학생의 정규수업(학교 내)과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학교 외)으로 나누고 있다. 한편 교제 및 여가활동의 중분류에 일반인의 학습시간은 일반인이 자기계발을 위해 하는 학습으로 취업 또는 자격시험, 취미생활을 위해 수강을 하거나 혼자 학습하는 행동으로 정의되는데 대학생 이상에서 취미나 취업을 목적으로 학습한 경우도 이에 해당되므로 본 글에서는 일반인의 학습을 학습시간에 포함하였다. 실제로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이를 학습시간에 포함시켜 조

2)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통계청, 2016)에 따르면 하루를 필수시간(개인유지), 의무시간(일, 학습, 무급노동, 이동), 여가시간(참여 및 봉사, 여가, 기타)으로 구분하고 있다.
3) 계절에 따른 시간배분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2004년 생활시간조사(9월 조사)와 2009년, 2014년 생활시간조사의 2차 조사(9월)를 연결하였다.

사했으며 본 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일반인의 학습 대부분은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의 취업목적 학습이나 졸업 후 미취업자의 취업 관련 학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중분류인 학교 내 학습활동은 이전 조사 체계와 동일하다. 반면 2004년과 2009년 학교 외 학습은 학습목적에 따라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학점관리 등)과 일반인의 학습(취미 혹은 취업)[4]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지만, 2014년 조사에서는 학교 외 학습은 학원수강, 방송·인터넷 수강, 스스로 학습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항목에 학점관리나 취업목적, 취미활동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2014년 조사에서는 청년층 학습목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학교 외 학습의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취업목적과 학점관리를 위한 학습으로 통합하여 비교하겠다.

Ⅲ. 청년층 생활시간 관리행태 변화

청년층의 학습시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청년층을 졸업여부와 취업여부로 집단을 나누어 평일과 주말에 각각 하루 일과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또한 각 집단별 시간배분의 변화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5]

첫째, 개인유지시간은 청년층 집단별로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기별로는 2004년에 비해 2014년 개인유지시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수면시간보다는 외모관리, 식사시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말에는 수면시간이 증가하여 개인유지시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 관련 시간은 대체로 유급노동시간이기 때문에 미취업자와의 격차가 나타나는 행위이다. 대체로 재학중 취업자의 일 관련 시간은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줄어들었고 주말에 일하는 재학중 취업자의 일 관련 시간 역시 2004년에 비해 2016년에 약 14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

4) 일반인의 학습은 외국어 관련 학습과 자격증, 취업 관련 학습 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학습과 컴퓨터나 취미 관련 학습으로 이루어지는데 2004년과 2009년 조사에서 후자의 행위자 비율은 3~4% 정도로 비중도 낮고 변화도 거의 없어 통합조사된 2014년 조사에서 학원수강은 대부분이 취업목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5)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전체 청년층 대비 집단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재학중 미취업	재학중 취업	졸업 후 미취업	졸업 후 취업
2004	21.8	10.3	20.3	47.6
2009	22.4	12.4	18.4	46.8
2014	27.9	12.9	16.5	42.8

〈표 2〉 청년층 시간배분 방식의 변화

(단위 : 분)

	평 일											
	재학생 미취업			재학생 취업			졸업생 미취업			졸업생 취업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개인유지	633	638	669	613	639	664	643	665	686	617	637	659
수면	470	453	471	453	447	475	486	486	500	452	448	463
수면 외	163	185	198	160	191	188	157	178	186	165	189	196
외모	70	82	84	72	89	84	61	75	75	71	85	84
식사	91	101	112	88	101	101	93	98	104	93	102	110
일 관련	5	1	2	303	217	238	10	11	16	441	420	430
학습	283	339	325	127	165	142	105	116	205	9	16	11
무급가사	23	34	29	16	23	25	214	212	149	39	38	37
참여 및 봉사	17	6	12	5	6	10	18	8	2	2	1	1
여가	322	259	249	225	236	204	360	325	288	204	176	172
교제	64	66	60	50	54	47	56	50	38	44	40	36
대중매체	126	104	86	86	96	73	178	166	136	92	77	74
취미	98	57	74	66	57	50	92	69	69	50	41	42
컴퓨터게임	50	25	40	31	19	22	48	36	33	19	12	20
이동	156	162	155	151	154	157	91	104	94	128	152	131
	주 말											
개인유지	692	708	731	666	678	722	678	700	728	685	709	737
수면	530	514	544	503	497	530	515	515	531	514	524	536
수면 외	162	194	188	163	181	192	163	186	196	170	185	201
외모	70	83	77	70	80	82	66	70	76	74	79	85
식사	90	108	110	92	101	108	93	111	118	95	105	115
일 관련	10	1	2	223	195	209	6	2	8	212	183	175
학습	120	125	133	35	52	57	79	57	129	11	6	10
무급가사	37	56	41	31	40	43	192	204	116	67	69	70
참여 및 봉사	5	1	8	1	2	2	5	0	3	1	1	1
여가	465	422	406	353	326	273	384	353	354	339	334	319
교제	73	72	66	70	52	56	58	65	61	58	61	60
대중매체	198	171	159	144	135	105	195	155	152	152	153	134
취미	125	109	117	79	79	59	83	72	77	79	64	61
컴퓨터게임	62	50	77	32	38	33	46	31	42	37	28	28
이동	113	126	118	131	147	132	97	124	102	126	138	128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연도.

나고 있다. 반면 졸업 후 취업자의 평일 일 관련 시간은 약 7시간 20분으로 비슷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주말에 일한 취업자의 일 관련 시간은 주 5일제 확산 등의 영향으로 2004년에 비해 2014년 약 37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졸업 후 취업자를 제외하면 각 집단별 학습시간은 2시간 이상이며 재학중 미취업자의 학습시간이 가장 높았다. 2014년에는 재학중 취업자보다도 졸업 후 미취업자의 학습시간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졸업 후 미취업자의 학습시간은 2014년 조사에서 평일과 주말 모두 2004년, 200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졸업자의 학습시간은 학교 내 학습이나 학점관리를 위한 학교 외 학습시간이 아닌 대부분 취업준비와 관련된 학습시간이란 점에서 최근 변화가 주목된다.

넷째, 필수시간과 의무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인 여가시간을 보면 모든 집단에서 평일이나 주말 모두 여가에 할애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학중 취업자의 주말 여가시간은 2004년 353분에서 2014년 273분으로 약 80분 감소한 반면, 다른 행위들의 시간량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으나 개인유지시간은 56분(수면시간 27분 증가, 외모관리 12분 증가, 식사시간 16분 증가), 학습시간 22분 증가하였다. 졸업생 미취업자의 평일 여가시간은 동기간 동안 72분, 무급가사 노동시간은 65분 감소하였는데 학습시간이 100분 증가하여 최근 학습시간으로 시간할당을 집중시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필수시간인 개인유지시간과 의무시간 중 학습시간은 2014년에 평일과 주말 모두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가시간은 대체로 줄어들었다.

Ⅳ. 청년층 학습시간 관리행태 변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년층 학습시간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004년에 비해서 2014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학생의 학습시간 증가보다 졸업 후 미취업자의 학습시간의 증가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청년층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시간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학습시간량과 행위자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청년층 재학생의 학습시간을 살펴보면 2004년 176분에서 2014년 228분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학습시간은 2009년에 비해서 8분가량 증가하였으나 이는 학교 내 학습시간이 약 19분 줄고 학교 외 학습시간이 약 28분 증가한데 기인한다. 또한 청년층 재학생의 학습행위자 비율(조사대상일에 학습을 했던 사람의 비율)은 2004년 58.9%에서 2009년 68.5%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70.0%로 증가했다.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학습행위자의 증가는 학교 내 학습자의 비율이 거의 일정한 가운데 학교 외 학습행위자 비율이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이다(학교 외 학습

2009년 49.8%→2014년 54.4%).

학교 외 학습은 인터넷 강좌나 학원 수강 등 학교강의와 별개로 청년층이 스펙을 쌓거나 취업을 위한 공부 혹은 학교 학습을 위한 공부와 관련 있는 항목으로 2009년에 비해 2014년 학교 외 학습시간과 행위자 비율의 증가는 학교 내 학습행위에서 학교 외 학습행위로의 학습 방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청년층 졸업여부별 학습시간

(단위 : 분)

		재학생									졸업생		
		학습시간			학교 내 학습			학교 외 학습			학습시간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전 체		176	220	228	109	139	120	66	81	109	34	35	59
요일	평일	231	271	275	166	186	163	65	86	112	37	42	65
	주말	91	98	105	22	27	6	68	70	99	29	20	42
성별	남성	168	205	232	104	128	121	63	77	111	43	40	62
	여성	187	237	224	117	152	119	69	86	106	27	30	56
연령	15~24세	174	224	234	113	142	127	60	82	107	50	57	82
	25~29세	185	205	190	86	126	71	99	79	119	24	27	46
일과후 피로감	피곤함	84	133	234	53	84	119	30	50	115	8	12	60
	피곤하지 않음	115	129	207	64	78	125	50	51	82	21	18	53
시간인식	부족	190	228	248	119	145	127	69	83	121	35	35	58
	여유	128	186	186	74	114	104	53	72	82	29	34	61
취업여부	취업	90	132	113	55	83	61	34	50	52	10	12	11
	미취업	220	275	278	137	174	145	82	101	132	95	96	185
학력	고졸 이하	-	-	-	-	-	-	-	-	-	29	26	68
	전문대	149	171	199	109	110	130	40	60	70	24	20	33
	대학 이상	186	244	242	110	153	116	75	91	126	52	57	75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 같은 현상은 졸업생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졸업생의 학습시간(학교 외 학습만 존재)은 최근 학습시간과 행위자 비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특히 졸업 후에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은 학습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행위자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졸업 후 미취업자 학습시간 2004년 95분→2014년 185분, 행위자 비율 동기간 24.6%→48.6%).

청년층 졸업여부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시간인식에 따른 학습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학생은 평일 학교 내 학습시간이 2009년에 비해 2016년에 186분에서 163분으로 약 23분 줄었으며, 학교 외 학습시간은 86분에서 112분으로 약 26분 증가했다. 또한 주말 학교 외 학습시

간은 70분에서 약 29분 증가한 99분을 기록했다. 졸업생의 경우에는 2009년 평일 학습시간이 42분에서 65분으로 약 23분 늘었고 주말에는 20분에서 42분으로 약 22분 증가했다.

재학생 성별 학습시간은 2004년과 2009년에는 여성의 학습시간이 남성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학교 내 학습시간이 남성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14년 여성의 학습시간은 학교 내 학습시간이 줄어 남성과 전체적인 학습시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행위자 비율로 보더라도 2004년과 2009년 여성의 학습 행위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10~15%p 이상 높았으나 2014년에는 약 70%로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학교 외 학습행위자 비율이 2014년에 53.5%로 2004년에 비해 16.7%p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보이며, 여성의 학교 내 학습행위자의 비율이 2009년에 비해 2014년 소폭 감소한 것도 요인이었다.

〈표 4〉 청년층 졸업여부별 학습행위자 비율

(단위 : %)

		재학생									졸업생		
		학습행위자			학교 내 학습행위자			학교 외 학습행위자			학습행위자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전 체		58.9	68.5	70.0	37.5	45.6	45.8	41.7	49.8	54.4	12.0	14.5	18.3
요일	평일	69.7	78.3	79.0	56.5	61.2	61.8	45.1	53.2	57.8	13.3	17.0	19.4
	주말	42.2	44.9	46.4	8.2	8.4	3.7	36.4	41.7	45.5	10.1	9.2	15.5
성별	남성	53.3	60.9	69.9	33.9	39.6	44.1	36.8	45.1	53.5	13.6	14.1	17.1
	여성	66.4	76.8	70.1	42.4	52.4	48.0	48.3	55.0	55.7	10.8	14.8	19.4
연령	15-24세	59.4	71.0	71.6	38.7	48.8	48.7	41.5	50.7	55.2	15.4	18.6	25.6
	25-29세	56.2	58.9	59.3	30.5	34.2	26.0	42.6	46.4	49.4	10.0	13.2	14.3
일과후 피로감	피곤함	36.1	51.8	70.6	22.2	30.6	45.6	24.1	36.6	56.7	6.7	9.6	18.4
	피곤하지 않음	44.0	44.8	67.4	23.8	24.8	46.5	31.3	38.9	45.1	10.5	9.6	18.2
시간인식	부족	61.4	69.3	71.4	40.4	47.1	48.8	43.2	49.0	57.0	12.2	15.0	17.3
	여유	50.2	64.7	66.8	27.4	39.7	39.0	36.2	53.0	48.8	11.3	12.8	20.9
취업여부	취업	39.0	50.6	43.5	22.5	29.6	25.5	25.6	37.0	34.0	7.1	9.6	6.8
	미취업	70.3	79.7	81.3	45.1	55.7	54.4	49.8	57.8	63.2	24.6	28.0	48.6
학력	고졸 이하	-	-	-	-	-	-	-	-	-	8.9	9.0	17.0
	전문대	52.1	59.5	62.0	37.8	40.3	43.8	33.8	43.7	39.9	10.9	11.9	13.8
	대학 이상	61.3	72.8	73.6	37.4	48.2	46.7	44.5	52.7	61.0	18.4	21.7	23.1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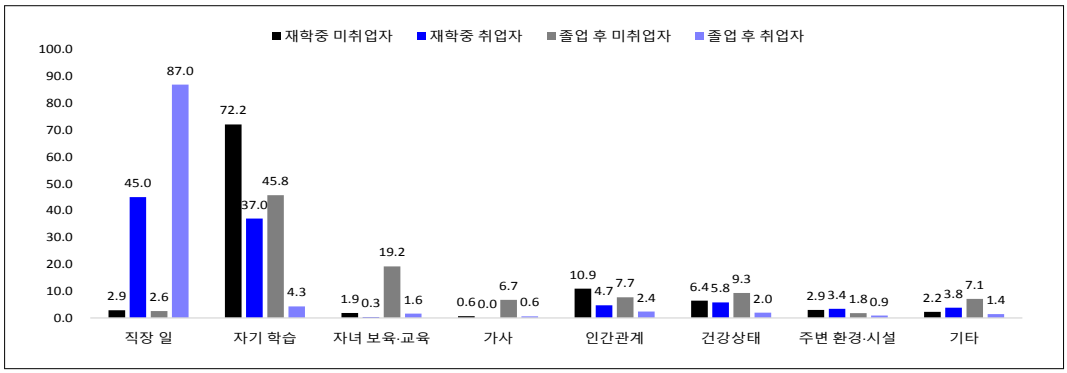
연령을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대 초반 연령층의 최근 학습시간 증가는 학교 외 학습시간 증가 때문이었고, 20대 후반 연령층의 학습시간 감소는 학교 내 학습시간이 줄었기 때문이었다. 행위자 비율로 보더라도 20대 초반 학교 외 학습행위자의 비율은

2004년에 비해 2014년 13.7%p나 증가했고 20대 후반 연령층의 학교 내 학습행위자 비율은 2009년에 비해 2014년 8.2%p 감소한 26.0%를, 학교 외 학습은 3.0%p 증가한 49.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교 밖에서 학점관리나 취업준비를 위한 행위와 시간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2]에서 2014년 일과후 피곤함을 느끼는 재학생 미취업자 중 학습으로 인해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6]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학중 취업자는 37.0%가 학습으로 인해 일과후 피곤함을 느꼈고 45.0%는 학업과 병행한 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3>에서 재학생 중 일과후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학습시간이 2014년에만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학교 외 학습시간이 더 높게 나타났다. 피곤한 사람의 학교 내 학습시간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짧게 나타났으나 학교 외 학습시간은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이 33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행위자 비율로 보더라도 피곤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학교 외 학습행위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1.6%p 더 높았다. 이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 피로감과 학습과의 관계가 정(+)의 상관관계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특히 청년층 재학생 학교 외 학습시간의 증가가 일과후 피로감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림 2〕 청년층 피곤함을 느끼는 주된 사유

(단위 : %)



주 : 일과후 피곤함을 느끼는 전체 청년층 대비 학습으로 인해 피곤함을 느끼는 청년의 비중.
자료 : 통계청(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그림 3]에서 하루 일과가 바쁜 이유, 즉 시간부족을 느끼는 사유를 보면 2004년 재학생 미취업자 중 학습으로 인한 시간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시간부족을 느끼는 전체 재학생 미취업자 대비 60.2%였고 2009년에는 57.9%, 2014년에는 74.4%로 증가했으며, 졸업 후 미취업자는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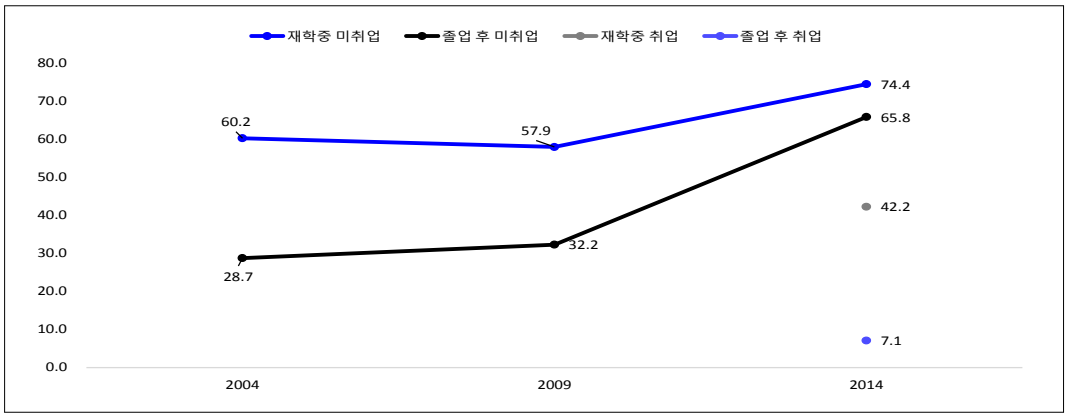
6) 학습으로 인한 일과후 피로는 2014년에만 조사되었다.

년 28.7%에서 2014년 65.8%로 크게 증가했다[7]. 또한 <표 3>에서 재학생 중 시간부족을 느끼는 사람의 학습시간은 시간여유가 있는 사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습시간량이 시간을 부족하게 느끼는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 특히 재학생의 시간부족 여부에 따른 학습시간 차이는 2014년 학교 외 학습시간에서 39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학중 미취업 학생의 학습시간은 2004년 220분에서 2014년 278분으로 약 58분 증가했는데 특히 학교 외 학습시간은 82분에서 132분으로 약 50분 증가했다. 반면 재학중 아르바이트와 같이 시간제 일자리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습시간이 2009년에 비해서 2014년에 오히려 줄었는데 이는 학교 내 학습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그림 3〕 청년층 학습으로 인한 시간부족 비율 변화

(단위 : %)



주 : 시간부족을 느끼는 전체 청년층 대비 학습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는 청년의 비중.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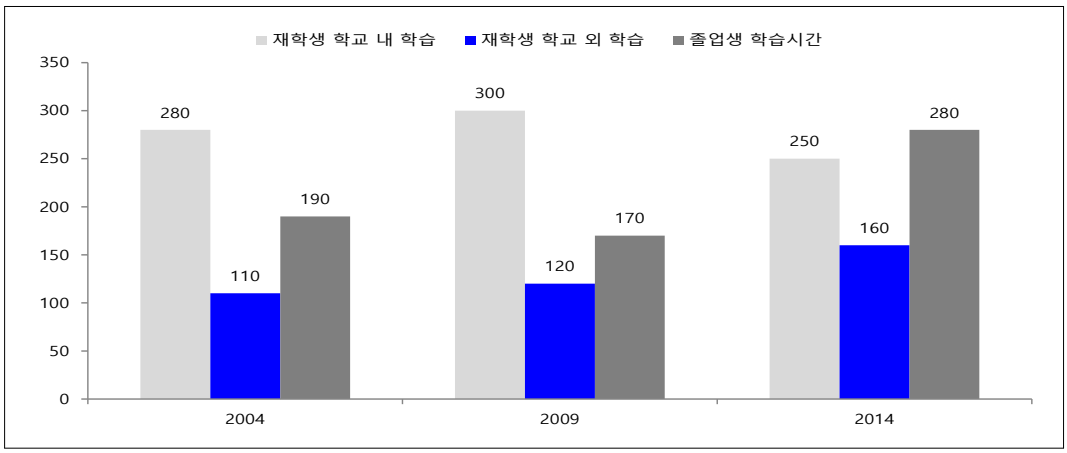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 재학생의 전체 학습시간과 행위자 비율은 학교 외 학습보다는 학교 내 학습의 증가로 인해 시기별로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학 이상 재학생은 학교 내 학습시간과 행위비율은 줄었고 학교 외 학습시간과 행위비율은 늘어났다. 졸업생을 학력별로 보면 2014년에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에서의 학습시간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행위자 비율 또한 증가하였다.

[그림 4]에서 학습행위를 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학습시간의 중위수를 보면 학교 내 학습시간은 중위수 값이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약 30분 줄어들었고 학교 외 학습시간은 약 50분 증가했으며 졸업생의 학습시간 중위수는 90분 증가하여 청년층의 학습시간이 대체로 학교 내 학습은 줄고 학교 외 학습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상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7) 2004년과 2009년 시간부족 사유를 묻는 문항이 일과 학습이 통합되어 있어 취업자의 변화 추이는 알 수 없다.

〔그림 4〕 청년층 학습행위자의 학습시간 중위수 변화

(단위 : 분)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연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4년과 2009년에 학교 외 학습은 학습목적별로 조사되었으나 2014년에는 학습의 활동형태별(방송 및 인터넷 강의, 학원 수강 등)로 조사되어 청년층의 학교 외 학습시간이 취업목적인지 취미나 혹은 학교과제 등을 위한 학교 밖에서의 학습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2004년과 2009년 목적별 학습시간 변화를 살펴본 <표 5>를 통해 2014년 학교 외 학습에서 어떤 목적의 학습이 변화했는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2004년과 2009년 재학생의 학교 외 학습시간 비중은 유사했는데 정규수업 외 수강[8]이 약 63%, 취업목적을 위한 학습(학원 및 스스로 학습)이 약 32%, 취미를 위한 학습이 약 4%였다. 2014년 학교 외 학습은 2004년에 비해 43분, 2009년에 비해 29분 증가했는데 목적별 학교 외 학습비중이 이전 조사 결과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면 취업목적 학습시간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재학생 미취업자 역시 재학생 전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취업목적 학습시간이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아르바이트와 학습을 병행하는 재학생은 학습시간이 오히려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감소했고 학교 외 학습시간의 변화가 거의 없어 목적별 학습시간의 변화 또한 2009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졸업 후 미취업자의 학교 외 학습시간은 이전 조사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는데 취업목적 학습시간 비중이 2004년에 비해 2009년 12%p 증가하여 2014년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되었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학교 외 학습시간 중 취업목적을 위한 학습시간 또한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9]

8) 대부분 스스로 학습이며 이는 집이나 독서실 등에서 학교 레포트 등을 위한 시간으로 학점관리를 위한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청년층 졸업 및 취업여부별 학교 외 학습시간(학습목적별) 변화

(단위 : 분, %)

	재학생								
				미취업			취업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학교 외 학습	66	81	109	82	101	132	34	50	52
정규수업 외	42 (63.4)	51 (63.4)	–	53 (65.1)	63 (64.0)	–	19 (55.7)	30 (61.4)	–
취업목적	22 (32.8)	26 (32.9)	–	26 (31.3)	35 (32.7)	–	14 (39.9)	17 (33.6)	–
기타	2 (3.8)	3 (3.7)	–	3 (3.6)	3 (3.3)	–	1 (4.4)	2 (5.0)	–
	졸업생								
				미취업			취업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학교 외 학습	34	35	59	95	96	185	10	12	11
정규수업 외	10 (36.0)	6 (23.2)	–	34 (36.0)	22 (23.2)	–	0 (1.5)	0 (2.0)	–
취업목적	22 (61.2)	26 (73.2)	–	58 (61.2)	70 (73.2)	–	8 (86.7)	10 (82.6)	–
기타	2 (2.8)	2 (3.6)	–	3 (2.8)	3 (3.6)	–	1 (11.8)	2 (15.4)	–

주 : ( ) 안은 학교 외 학습시간 대비 목적별 학습시간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연도.

Ⅴ. 맺음말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최근 청년층은 학습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이 증가하는 형태로 시간관리 방식이 변화하였다. 재학중 취업자의 평균 학습시간은 미취업자의 1/2 수준이었는데 최근 들어 재학중 미취업자는 취업목적의 학교 외 학습시간이 증가했고, 재학중 취업자는 2009년에 비해 2014년 오히려 학교 내 학습시간의 감소로 인해 학습시간이 줄어들었고 동기간 유

9) 졸업 후 미취업자의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은 대체로 재수생의 학습시간인데 2014년 학교 외 학습시간이 과거에 비해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은 재수생보다는 취업준비를 하는 미취업자로 보여 취업목적을 위한 학습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급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졸업자의 경우에 재학생에 비해 학교 외 학습시간의 증가폭이 크지는 않았으나 졸업 후 미취업자만으로 제한해보면 여가시간이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를 취업목적 학습시간에 배분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또한 재학생보다 학교 외 학습행위자의 비율과 시간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졸업 후 미취업자가 과거에 비해 취업을 위해 학습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청년기는 다른 연령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학습시간에 할애하는 비중이 높은 시기이다. 최근 청년 취업시장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재학생이나 졸업 후 미취업자 모두 학교 밖에서 학습하는 시간 및 행위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학점관리, 자격증 시험준비, 토익을 비롯한 각종 어학점수를 위한 학교 밖에서의 스펙을 쌓는 청년층의 증가 때문으로 생각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선호증가는 공시생 같이 시험준비를 하는 청년층이 증가한 것 또한 학습시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 취업시장이 과거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 노동시장의 초과노동공급 상태가 지속되면서 청년들은 스펙을 더 많이 쌓거나 공무원 및 공기업 시험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규모증가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기업은 과거에 비해 보다 나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전형과 더불어 시험이라는 보다 객관적인 방식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글은 청년의 졸업여부와 취업여부별로 학습시간의 차이와 그 변화를 살펴본 탐색적 연구이다. 재학중 취업여부가 학업성과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졸업 후 미취업자의 학습시간 증가가 노동시장 성과와 결부되는지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LI

[참고문헌]

김진욱(2006),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2, 한국노인복지학회, pp.149~17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5월)」 원자료, 각 연도.

_____,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 통계청 보도자료.